

2023년

인천 서구 지역학 콘텐츠 공모전



#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우수작품집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주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협력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3년

인천 서구 지역학 콘텐츠 공모전



#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우수작품집





# Contents

발간사		04
축사		06
		08
심사평		12
전 학년 공통 부문		
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상	김시원 단봉초등학교 5학년	16
초등학교 1~3학년 부문		
최우수상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상	김민영 해원초등학교 2학년	20
	이수빈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3학년	22
우수상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상	김태은 가정초등학교 2학년	24
	김혜리 석남초등학교 2학년	25
	양민채 석남서초등학교 3학년	26
장려상 / 국회의원상	김세윤 한별초등학교 1학년	27
	김소예 가현초등학교 1학년	28
	김준우 경연초등학교 2학년	29
	이수민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3학년	30

입선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상

권이솔 경서초등학교 1학년  
손세민 해원초등학교 1학년  
김소율 마전초등학교 2학년  
김아린 해원초등학교 3학년  
은지안 청일초등학교 3학년

31  
33  
35  
37  
39

김라엘 마전초등학교 1학년  
유채아 천마초등학교 1학년  
정해림 동명초등학교 2학년  
김아정 해원초등학교 3학년  
이현지 해원초등학교 3학년

32  
34  
36  
38  
40

## 초등학교 4~6학년 부문

최우수상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상

권가윤 경명초등학교 4학년  
주지율 신석초등학교 4학년

44  
46

우수상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신승희 경연초등학교 4학년  
권담희 청람초등학교 5학년  
김시율 해원초등학교 6학년

48  
49  
50

장려상 / 국회의원상

김예원 해원초등학교 5학년  
민서아 경연초등학교 5학년  
배하은 청라초등학교 5학년  
이채연 해원초등학교 6학년

51  
52  
53  
54

입선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상

강동원 가정초등학교 4학년  
서동준 해원초등학교 4학년  
문지우 경명초등학교 5학년  
박세연 석남초등학교 6학년  
이해인 천마초등학교 6학년

55  
57  
59  
61  
63

김단미 한일초등학교 4학년  
김예서 해원초등학교 5학년  
김강민 한일초등학교 6학년  
박소연 송도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CMIS)6학년  
조여원 가현초등학교 6학년

56  
58  
60  
62  
64

## 발간사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

2023년의 봄,

인천 서구를 고민하고 즐기며 그림을 그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

2년간의 회복 기간을 지나온 2023년의 봄은 유난히 밝고 따스했습니다. 인천서구문화원은 지역 어린이들이 우리 고장을 문화예술로 상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왔고 지난 2021년 제1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그리기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주었을 뿐 아니라 보호자님,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지도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520명의 서구 어린이들이 출품해 주었습니다.

서구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저는 불과 몇 년 전과 달리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옛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서구의 역사, 문화재, 많이 바뀐 지역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고민이 여러분들의 작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을 배우고 옛 마을을 거둬 상상하며 다양한 주제로 열심히 그림 그렸을 어린이들을 생각하니 아낌없는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회화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던 모습, 나무를 타고 놀았던 모습, 녹청자의 도공이 정성스럽게 도자기를 빚었던 모습, 가재가 살았던 가재울 마을을 재미있게 그려준 아이들의 재치 있는 그림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 과정〈우리 지역 바로 알기〉와 함께 매년, 3월-4월에 진행되는 서구 어린이들만의 그림 축제로, 3회 대회를 통해 39명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었고, 수상을 격려하고 우리의 상상 속 서구를 알리기 위해 우수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님과 선생님들께 저를 비롯한 인천서구문화원 직원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완성해 낸 520명 어린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축제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우리 고장 인천 서구를 기억하고 미래에 어떤 서구를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우리 서구 어린이들에게 매년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가 기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인천서구문화원에서 더욱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서구청장  
강범석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고 어딜 봐도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에는 항상 상쾌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른 날씨만큼이나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도 푸른 희망을 품고 씩씩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푸름과 희망의 계절에 인천서구문화원의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우수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어린이에게는 축하를, 지도해 주신 학부모님, 선생님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서구는 인천에서 첫 번째로 인구 수 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서구는 서곶, 개건너라고 불릴 만큼 낙후된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지금의 인천 서구는 개발과 함께 최소 7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를 보고 달려가지만 과거가 어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옛 서구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열심히 그림으로 그려준 어린이들이 무척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5월 4일 인천서구문화원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여해 여러분이 그린 상상력이 더해진 옛 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문화재, 조상들의 삶과 모습, 옛 이야기를 열심히 연구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지역의 옛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는 미술대회는 오직 우리 서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520명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니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성장하는 어린이들’ 덕분에 우리 서구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 같습니다.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인천서구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국회의원  
김교흥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입니다.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개최와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구 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군섭 서구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빛나는 창의력으로 대회에 입상한 학생 여러분에게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얀 도화지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득 담은 이번 대회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서구의 과거를 상상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대회를 통해 예술의 창조적 기쁨을 만끽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서구도 커다란 도화지 같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늦게 전깃불이 들어오던 동네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한 것도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주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도 항상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더 큰 미래를 그린다면 하얀 도화지 같은 서구가 형형색색의 매력이 가득한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도 학생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배우고, 내일을 꿈꾸며, 끝없는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개최와 우수작품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참가한 학생들과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국회의원  
신동근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를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의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군섭 서구문화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넘치는 창의력을 가진 멋진 작품들로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구의 어린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림대회가 열린 것을 참으로 뜻깊게 여깁니다. 서구가 가진 풍부한 역사적 가치는 오늘날 빠른 성장의 동력 중 하나입니다. 서구의 미래를 이끌 우리 학생들이 고장의 내력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서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봅니다.

다양한 주제와 시대별 특성을 살린 우리 어린이들의 출품작에서 해맑은 동심(童心)과 함께 놀라운 통찰력을 봅니다. 인천과 함께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내온 회화나무, 고인돌 유적에서 착안해 재미있게 풀어낸 인천의 석기 시대, 인천의 자랑이자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녹청자, 황어장터의 영웅 심혁성 독립운동가 등 우리 어린이들이 완성도는 물론이요 깊은 의미까지



담아낸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그 순수함에 덩달아 웃음이 나는 한편 우리 서구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대회에 참가해주신 520명의 어린이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애정으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인천 서구가 더 밝은 내일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귀한 행사를 열어주신 서구문화원은 본 행사는 물론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서구의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희망차게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주시길 소망하며, 저 역시 어린이가 행복한 서구를 위해 쉽 없이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에 참석해주신 어린이 여러분과 행사를 주최해주신 서구문화원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내년에 열릴 행사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의 재치 있는 작품을 볼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평



심사위원장 이성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인회총회장

안녕하세요?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심사위원장 이성미입니다. 공모전 형태로 진행된 3회 행사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열심히 옛 서구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작품을 출품해 주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인천 서구 어린이들은 옛 서구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했으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우리 심사위원들에게도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경서동 녹청자, 회화나무, 정서진, 서구의 옛 설화, 지명 유래, 그리고 서구의 독립운동 이야기까지...’ 아이들이 표현한 옛 서구의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주제로 기발한 상상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작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려낸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고 상상력에 기반한 작품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번 심사에서는 되도록 독창적인 생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정하기로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39명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는데 520명의 출품작 가운데 39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상을 차지한 김시원 어린이의〈회화나무의 사계절〉은 인천 서구의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의 사계절을 색채로 표현하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독창적으로 잘 표현하였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는 지금의 우리 동네의 모습이 아닌 내가 살아보지 못한 마을을 상상하여 그리면서 내가 사는 우리 동네인 서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기회를 아이들이 경험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 서구를 상상하며 내가 살고 있는 서구의 발전된 모습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번에 수상을 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실망하지 말고 4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수상하신 39명의 어린이에게는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심사현장을 살짝! 공개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인천서구문화원에서는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 D-1. 2023.04.24.  
접수된 작품을 학년별로 분류합니다.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수상작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공유합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심사위원장님



열띤 심사의 현장!



수상작을 선정한 후에는 점수표와 왜 이 작품이 선정되었는지 열심히 이유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는 심사위원에게 출품자의 이름과 학교를 제외한 학년만 공개합니다. 다시한번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인천 서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제3회 인천 서구 지역학 콘텐츠 공모전<우수작품집> 소개를 맡은  
서동이, 동동이 입니다.



3회를 맞이한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는 총 520명의 인천 서구 어린이가  
참여해 주었어요. 우리 서구의 다양한 특징들을 통해 주제를 표현해 주었고,  
수상작 39작품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멋지고, 즐겁고, 신나게 표현한 친구들의 그림을 통해 옛 서구 마을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 대상 전 학년 공통 부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상 / 김시원 단봉초등학교 5학년





회화나무의 사계절 김시원 (단봉초등학교 5학년)

**작품설명** 수백 번의 계절을 보냈을 회화나무를 상상했어요. 따듯한 봄날엔 꽃이 피고, 싱그러운 여름엔 곤충들이 함께해요. 흐르는 냇가에서 낚시도 하구요. 붉게 물든 가을과 차가운 겨울에도 끄덕없는 회화나무 옆에서 연도 날리고 썰매도 타요.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단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김시원입니다.

저는 원래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형과 함께 자주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도 하면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희 형은 저보다 그림도 더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했는데, 그래서 자주 형에게 그림이나 만들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정말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엄마께 부탁드립니다 미술학원을 4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가는 미술학원 시간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번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는 선생님께서 출전해 보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서구의 옛 모습들과 현재 모습 등을 사진을 통해 관찰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신현동에 있는 '회화나무'를 보고 바로 그 나무의 옛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온통 주택들로 둘러져 있고 혼자 덩그러니 그곳을 지키고 있는 회화나무를 보니 외로워 보이기도 했고 500년 이상을 버텨온 나무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상상 속의 회화나무는 지금보다 더 웅장하고 사람들과 좀 더 친숙한 나무였을 것 같았습니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변화도 겪었을 회화나무를 좀 더 재밌게 그려보고 싶었고, 사계절의 모든 모습을 한 나무에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파스텔로 색을 표현 했습니다.

처음 대상 소식을 학원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선생님은 너무 기쁘고 떨리셨는지 말씀도 잘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이런 큰 상이 처음이라 놀라기도 했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엄마는 가문의 영광이라며 계속 말씀하시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다 같이 기뻐해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그림 실력이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재밌게 열심히 계속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3학년 어린이들이 그린 옛 서구 마을은

녹청자를 빚는 도공의 마음과 회화나무를 향한 간절한 바람, 우물을 길고, 물놀이를 했던  
즐거운 이야기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즐겁고 신나는 옛 서구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 초등학교(1-3학년) 부문

---

### 수상작





자연 속의 우리 마을 김민영 (해원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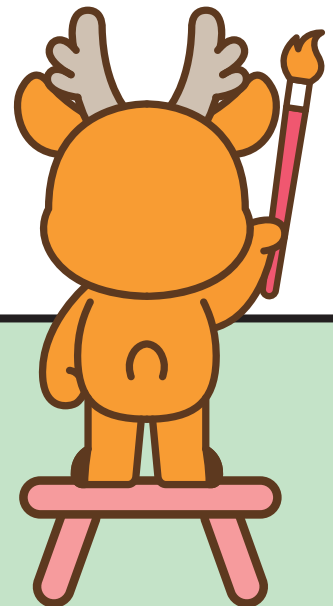
**작품설명** 돌다리 사이로 깨끗한 물도 흐르고 아주 오래된 꽃나무가 함께하는 멋진 서구의 옛 동네 모습입니다. 나무에 기대어 낮잠도 자고 길거리에 있는 돌을 가지고 놀기도 하면 어느새 뉘엿뉘엿 아름다운 노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해원초등학교 2학년 김민영입니다.

옛 서구 마을을 생각하면서 돌다리 사이로 물도 흐르고 꽃나무도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대회에 나와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상 받는 것을 같이 축하해 줘서 너무 기쁘고 상을 받고 많은 선물도 받고 저녁을 먹으면서 상을 받은 게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을 했는데 '지구부터 땅끝까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기와집을 그린 것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뿌듯했다고 말하며 가족들과 같이 계속 그림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선물 받은 것도 뜯어보고 그림도 벽에 걸어두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려서 대상을 받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고인돌 만들기 이수빈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3학년)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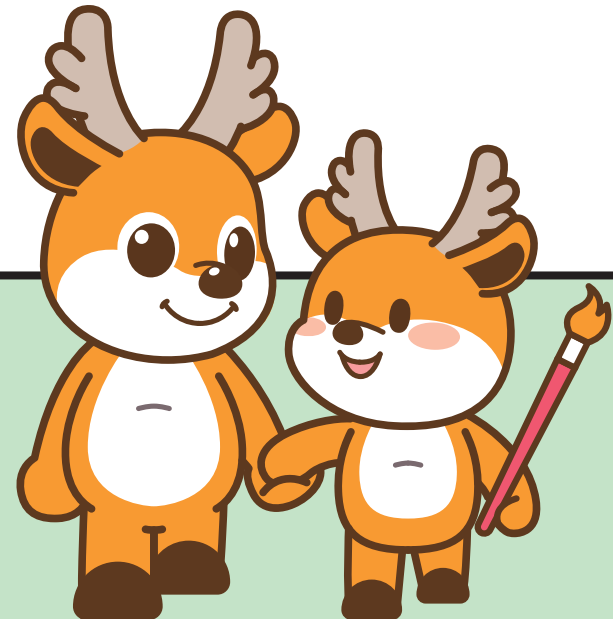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과 공룡들이 함께 힘을 합쳐 운반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재밌어 하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을 받았다고 알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뻐던 것 같아요.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를 나가겠다고 결심한 후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배운 고인돌에 대해서 그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신기해서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옛 서구의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서구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시상식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상을 받아서 기뻐해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자기처럼 은은하고 조화로운 인천 서구 김태은 (가정초등학교 2학년)

작품설명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서구에서 오래 사셨대요. 옛날에는 건물들이 많이 허름했는데 30년동안 많이 발전했대요. 저는 그동안 갔던 인천의 박물관, 체험관들의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녹청자 박물관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서구의 옛날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며 살았을 것 같아 상상하여 그려봤어요.





서동이 분식 김혜리 (석남초등학교 2학년)

**작품설명**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서동이가 주인인 옛 서구 분식집으로 안테나인 뿔을 통해 구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는 상상화 작품입니다.





공룡이 살던 옛 서구 마을 양민채 (석남서초등학교 3학년)

작품설명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서구 마을에 커다란 공룡이 살고 있었어요. 무서운 화산이 광 하고 폭발해서 공룡들이 놀라고, 시간이 흘러 지금의 멋진 서구가 탄생했겠지요?





신비의 서구 옛 마을 김세윤 (한별초등학교 1학년)

작품설명

신비의 마을은 나무를 베는 사람이 없는 공기가 맑고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로 표현했습니다.  
직접 물고기도 잡고 과일, 채소도 기르고 팔며 서로 도우며 지내는 행복한 신비의 마을입니다.





서구의 우물 김소예 (가현초등학교 1학년)

작품설명 수도가 없던 시절 우물에서 물을 떠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렸어요.





신나는 서구! 재미있는 서구! 김준우 (경연초등학교 2학년)

작품설명

옛날에 서구가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영상을 보았는데 마침 쓰레기 마을 영화를 보았고 서구를 떠올려 보았어요!  
즐겁고 신나는 서구에서 살고 있는 지금을 그때의 모습으로 상상해서 그려보았어요.





바닷속 서구 마을 이수민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3학년)

작품설명

옛 인천 서구는 바다가 근접해 있기에 바닷속 서구 마을을 상상하여 즐겁게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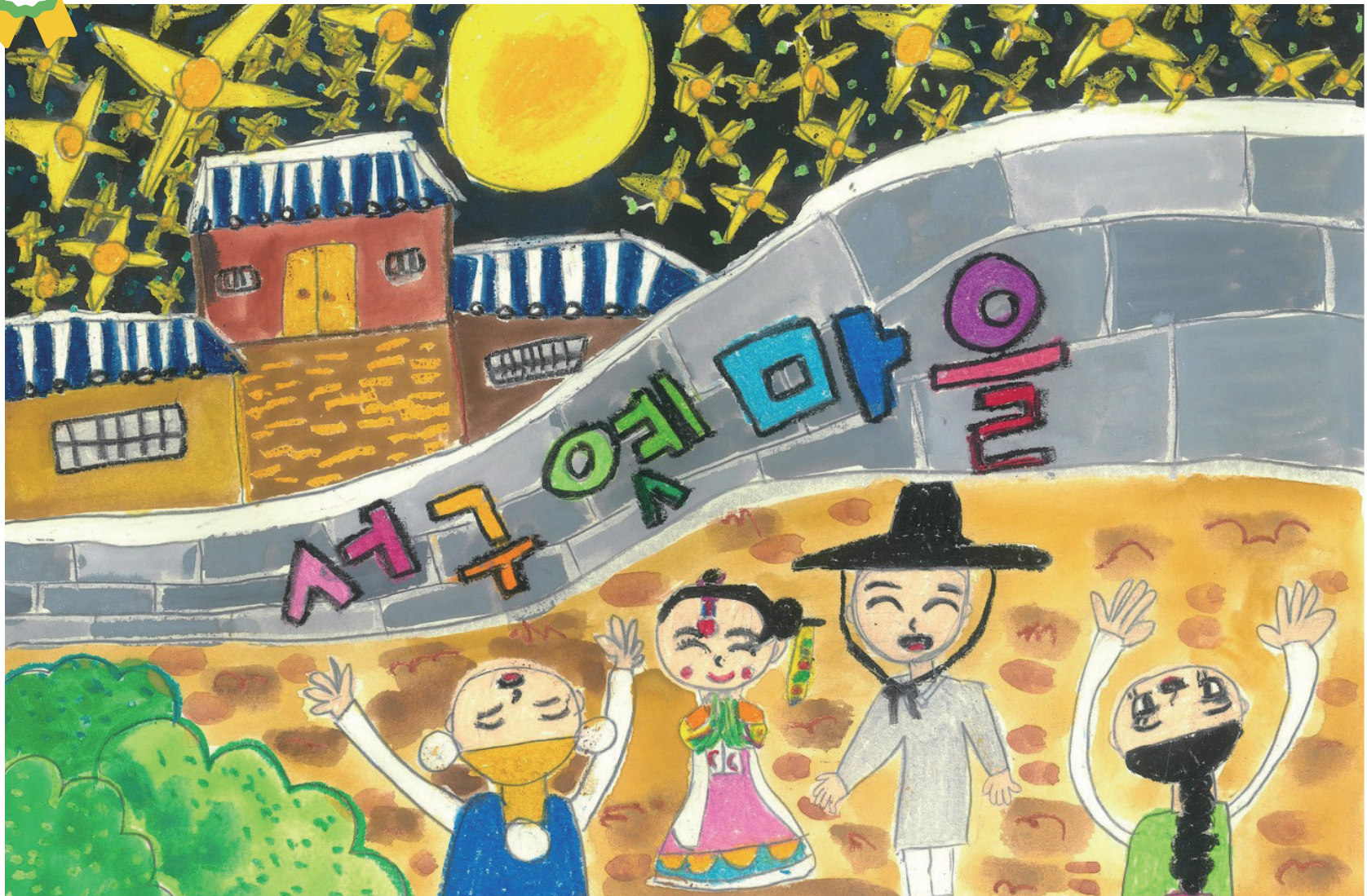


서곶마을 물놀이장 권이솔 (경서초등학교 1학년)

작품설명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가에 있는 물놀이장입니다. 선녀와 나무꾼이 등장하는 물놀이장으로 꽃사슴도 볼 수 있고 물고기도 잡는 즐거운 서곶마을 물놀이장입니다.





옛 서구의 봄밤 김라엘 (마전초등학교 1학년)

작품설명

봄 개나리꽃이 피어나는 옛 서구의 밤풍경, 개나리 꽃이 달빛을 만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따듯한 봄밤을 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먹을 감고 놀아요! 손세민 (해원초등학교 1학년)

작품설명

옛날 깨끗한 인천 서구 바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는 시원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예전에는 바다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 동네 거북마을 유채아 (천마초등학교 1학년)

작품설명

우리 동네 거북 마을은 옛날에 거북이들이 많은 동네라는 상상으로 그린 상상화 작품입니다.





농사짓던 옛 서구 마을의 행복한 가족 김소울 (마전초등학교 2학년)

**작품설명**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를 예전에는 '개 건너'라고 불렀대요. 논밭이 많았던 옛날 서구 마을을 떠올리며 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새참을 차려 기다리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우리 소는 땀을 뻘뻘 흘리고, 찜을 질질 흘리면서 힘들게 일해서 너무 슬퍼 보여요. 지금은 기계로 밭을 갈아 소가 힘들게 일을 안하니까 좋아요.





옛 서구 녹청자 도요지 정해림 (동명초등학교 2학년)

작품설명

옛날 서구 마을의 녹청자 도요지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보았습니다. 멋진 도자기들을 만들어 내는 서구 마을 사람들을 존경하며 표현했습니다.





가래떡 만드는 날 김아린 (해원초등학교 3학년)

작품설명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주식인 쌀을 이용하여 가래떡 만드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함께 만들고 나누면서 가족 같은 모습의 옛 서구 마을입니다.





연날리기 좋은 날 김아정 (해원초등학교 3학년)

작품설명

전통놀이의 하나인 연날리기를 떠올리며 예전에는 어떻게 재미있게 보냈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연을 만들고 선물하고 또한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는 모습을 그려보았는데 저도 높이높이 연을 날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옛 서구 마을 공동어장 은지안 (청일초등학교 3학년)

작품설명

옛 서구 지역은 넓은 해안과 갯벌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채취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의 옛 풍경-학교는 어땠을까 이현지 (해원초등학교 3학년)

작품설명

우리 동네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 생각하던 중 동네에 있는 우리 학교의 옛날 모습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상상하며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 만나는 옛 서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푸른 숲이 가득한 서구의 모습,  
연날리기, 봄꽃축제, 잔치로 행복했던 서구의  
모습, 아이들이 표현해 준 행복한 옛 서구의  
모습처럼 앞으로의 모습도 늘 행복으로 채워졌으  
면 좋겠습니다.





## 초등학교(4-6학년) 부문

### 수상작

축하해!!







서구의 보물 녹청자 권가윤 (경명초등학교 4학년)

작품설명 인천 서구를 널리 알린 우리 고장의 명물!! 녹청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경명초등학교 4학년 권가윤입니다. 이번 2023년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를 통해 제 그림이 최우수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주제로 그림을 그릴지, 또 옛 서구의 모습은 어땠는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떠올라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옛날의 서구는 어땠을까?' 한 번도 과거의 서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그림대회를 통해 많은 자료도 보고 고민해보며 서구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옛 모습을 접해보며 변화한 서구의 모습도 공부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옛 인천 서구의 아름다운 역사를 알리기 위해 고려청자를 만들던 가마터가 서구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모습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림이지만 직접 녹청자를 재현해 보며 아주 옛 과거인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녹청자를 정성을 다해 굽고 빚었을 옛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녹청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기회를 주시고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서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며 항상 우리 마을 서구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 심혁성 주지율 (신석초등학교 4학년)

작품설명

3·1 운동 당시 황어장에서 300여 명의 군중을 모아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한 우리 서구의 독립운동가, 심혁성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신석초등학교 4학년 주지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학원 선생님을 통해 대회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읽었습니다. 인천 서구에도 독립운동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심혁성 독립운동가'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여서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신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혁성 선생님은 황어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하셨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이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너무도 뿌듯하였습니다.

저는 상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는 가족, 미술 선생님, 저를 축하해주신 분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제 그림을 최우수상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서구문화원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밝고 씩씩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린이로 자라나겠습니다.





석곶 오일장 신승희 (경연초등학교 4학년)

작품설명

지금 도심은 마트에서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지만, 옛 서구의 장터의 모습 오일장을 상상하여 그려보았습니다.





회화나무 아래 행복한 일상 권담희 (청람초등학교 5학년)

작품설명

회화나무 아래서 사람과 자연 동식물까지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잔치가 열린 즐거운 서구마을 김시율 (해원초등학교 6학년)

작품설명

행복한 서구에서 잔치가 열린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전통춤 추고 도자기를 만들던 사람도 신이 나서 달려오는 재미있는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그 시대로 훌쩍 여행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서구 김예원 (해원초등학교 5학년)

작품설명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는 서구의 옛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시원한 물에 발장구도 치고 빨래도 하고 물고기와 가재도 수영하면서 서구를 대표하는 동물인 사슴도 목을 축이는 맑은 자연을 그려보았습니다.





회화나무와 어머니의 기도 민서아 (경연초등학교 5학년)

작품설명 신현동 회화나무 아래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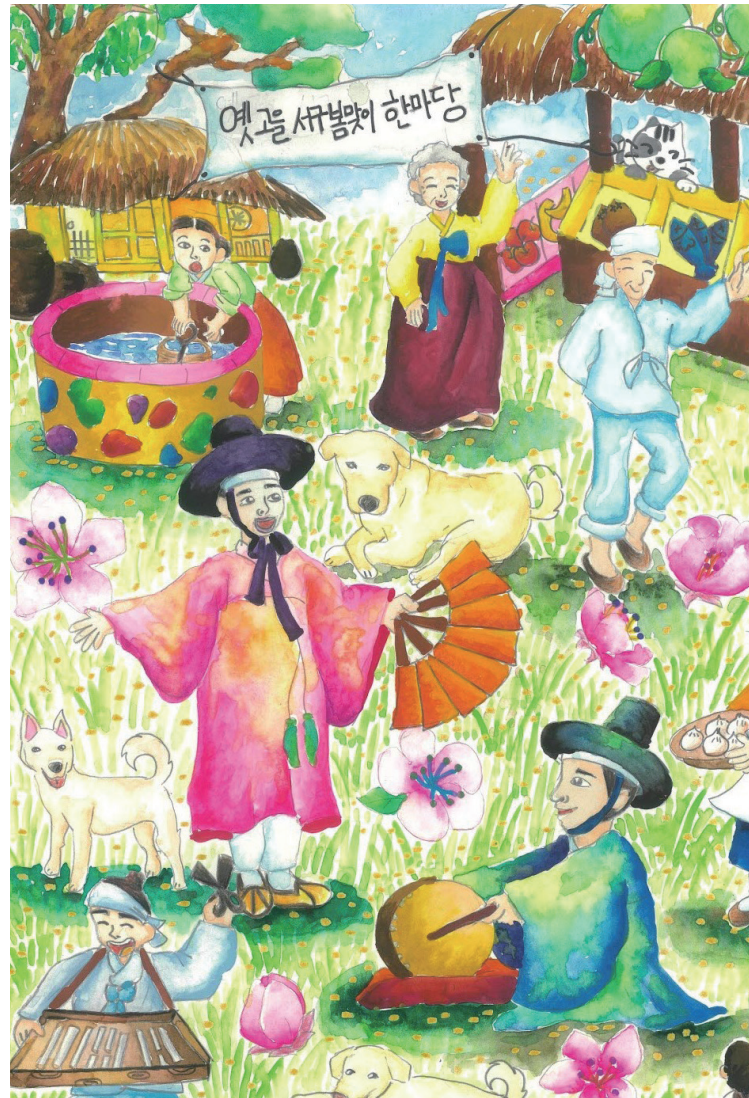




선사시대 서구의 모습 배하은 (청라초등학교 5학년)

작품설명

선사시대 공룡과 함께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옛 고을 서구 봄맞이 한마당 이채연 (해원초등학교 6학년)

**작품설명** 우리 동네 호수 공원에서는 해마다 각종 축제가 열린답니다. 예전에는 축제가 열린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가자 가자 가좌시장으로 강동원 (가정초등학교 4학년)

작품설명

내가 사는 아파트 옆엔 가좌시장이 있어요. 학교 끝나면 엄마가 여러 가지 간식을 사줘요. 옛날 가좌시장은 어땠을지 상상해 봤어요.





아름다운 인천 서구 김단미 (한일초등학교 4학년)

**작품설명** 예전에는 바다였던 인천 서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그대에는 자연과 더욱 어우러지는 동식물과 아름다운 한복의 조화를 그려보았습니다.





내가 살고있는 이곳이 갯벌이었다면.... 서동준 (해원초등학교 4학년)

작품설명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과거 바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메꾸고 땅을 만들어 도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바다와 갯벌이 있었을 그대, 특히 갯벌에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항구에서의 거래 김에서 (해원초등학교 5학년)

작품설명

옛날 넓고 다양한 인천 서구 바다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무역하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서구의 유명한 도자기와 물고기, 보석 등을 세계에 전파하며 인천 서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모습입니다.





옛 서구 마을 문지우 (경명초등학교 5학년)

작품설명 갯벌과 바다가 있었던 옛 서구 마을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동네 달고나 할아버지 김강민 (한일초등학교 6학년)

작품설명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 따듯한 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연탄을 생각하며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옛 서구의 모습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연탄을 운반하고 그 연탄을 이용해 맛있는 달고나를 만들어 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더욱 행복하고 따듯한 예전 서구를 그려보았습니다.





별 서리 박세연 (석남초등학교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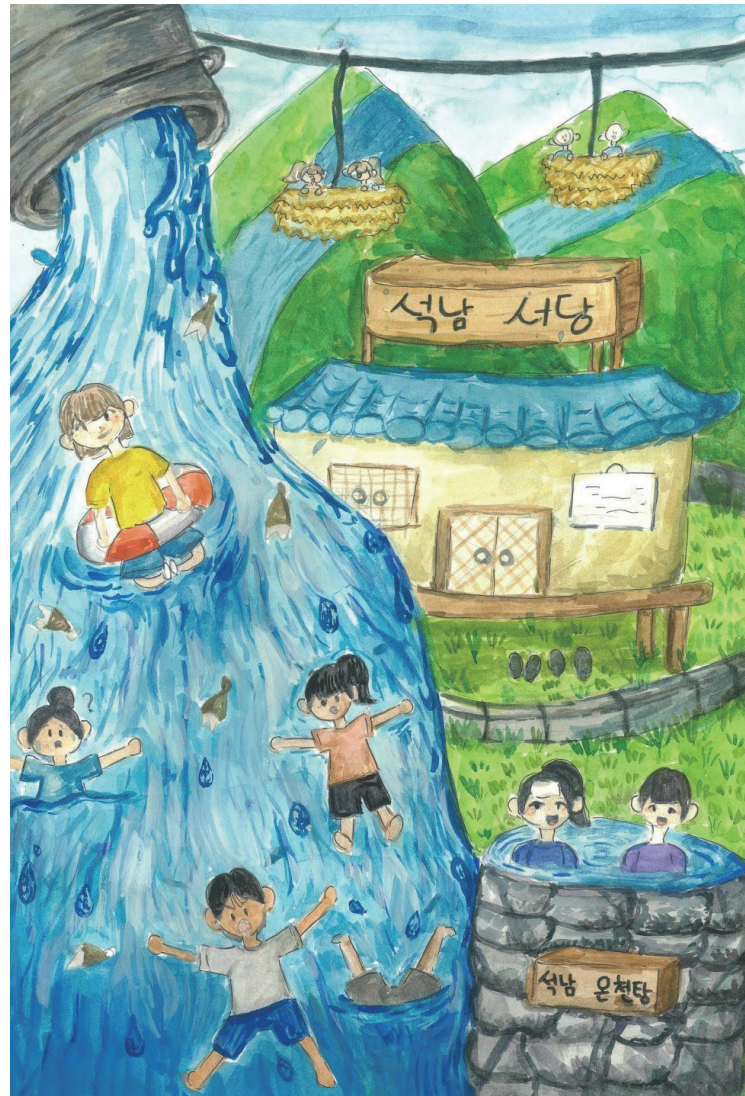
작품설명 지금은 별을 보기 힘들지만 과거의 우리 동네에는 별이 떨어질 정도로 넘쳐서, 수박 서리처럼 별을 서리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바탕으로 그린 상상화 작품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다 박소연 (송도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CMIS)6학년)

**작품설명** 우리 동네는 바다가 인접한 곳이다 보니 거실에서 오염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다 보면 큰 배들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는데 '옛' 사람들도 배를 타며 어업을 했겠지' 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모양은 변했지만 바다를 통해 생활하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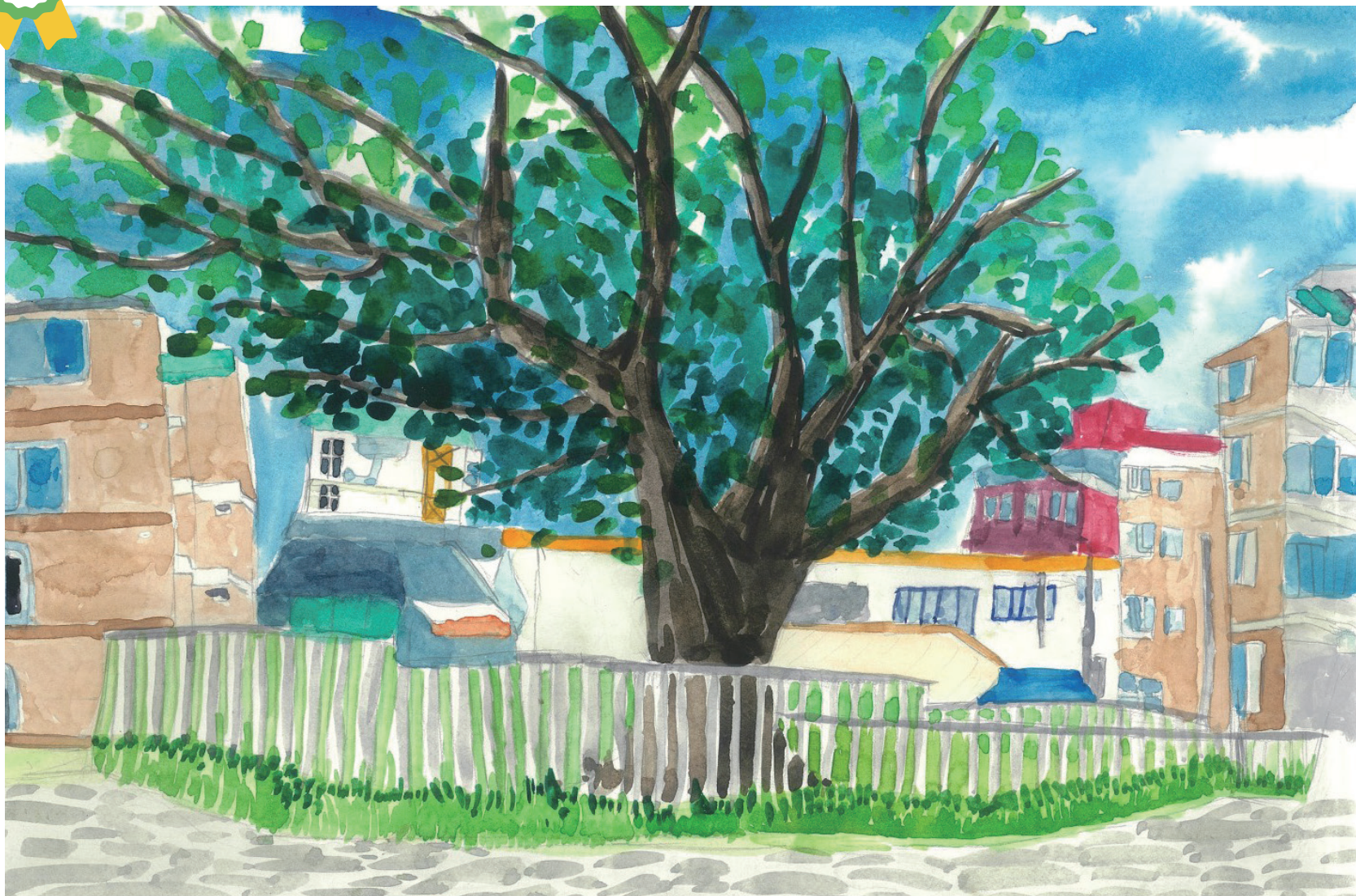


석남 옛 워터파크 이해인 (천마초등학교 6학년)

작품설명

지금의 워터파크가 예전에 있었다면 계곡을 이용해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상상을 바탕으로 그린 상상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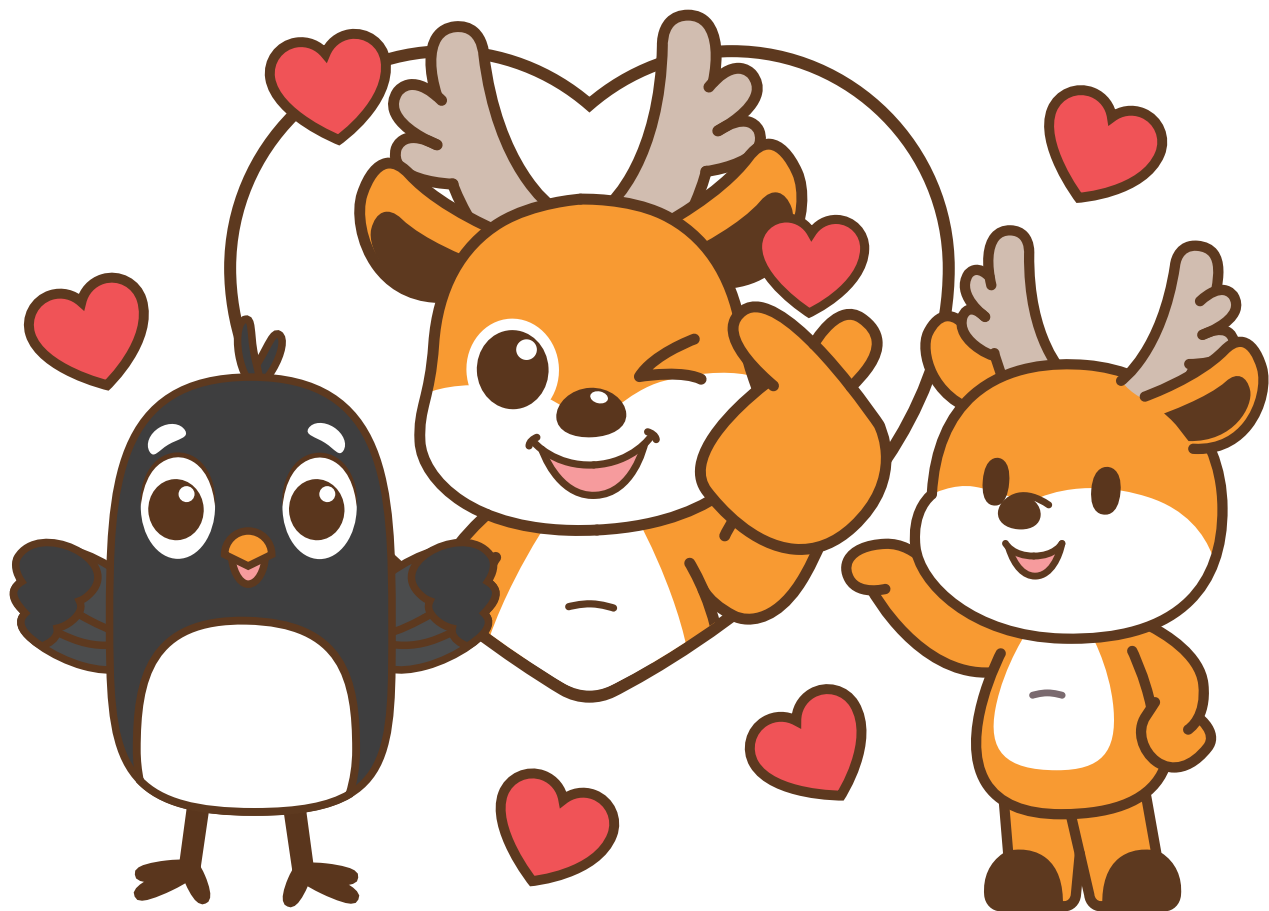




신현동 회화나무 조여원 (가현초등학교 6학년)

작품설명

인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회화나무입니다. 지금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아주 크고 멋진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2023년 인천 서구 지역학 콘텐츠 공모전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에 참여해 준,  
520명의 서구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시상식

2023.05.04.(목) 저녁7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함께



올해의 대상!!



우수상 수상자들과 함께



장려상 수상자들과 함께



입선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자 단체사진(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2023년 인천 서구 지역학 콘텐츠 공모전

제3회

#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우수작품집

발 행 일 2023년 6월 12일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전 화 032-582-4341

팩 스 0502-582-4742

w e b. [www.inscc.kr](http://www.inscc.kr)

발 행 인 정군섭

기 획 서덕현

편 집 김혜정, 정다희, 김효주, 구교성


디 자 인 아츠비

주 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주 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본 책자는 2023년 인천 서구 지역학 콘텐츠 공모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3회 옛 서구 마을 상상화 그리기대회 우수작품집>입니다.

※ 작품집의 그림 및 캐릭터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제10조에 따라 인천서구문화원과 원작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